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묘안은 아직 필자에게 없으며, 따라서 '증거를 가짐'에 대한 분석은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맞아 떨어짐'에 대한 분석의 문제가 미결의 과제이다. 앞서 증거와 믿음의 '맞아떨어짐'을 증거가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뒷받침 역시 더 이상의 설명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뒷받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연역적, 귀납적 관계를 들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뒷받침의 관계는 미결

의 과제이며, 따라서 '맞아 떨어짐'의 관계 역시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게 된다.

이제까지 증거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그것에 대해 제기된 반론들을 살펴 봄으로써, 증거론이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론이지만, 나름의 미결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증거론은 아직 완성된 이론은 아니며, 증거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지적된 미결의 문제의 해결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제38차 콜로키움

제목: 주자철학에 있어서 心의 문제

일시: 1994. 12. 9

강사: 정상봉(서울대 강사)

발표자 정상봉은 주자철학 연구에 있어 '사상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자의 심론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流行'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자가 자신의 철학 체계를 분명히 하였다고 파악한다. 주자는 中和舊說과 中和新說 사이에 心體流行이란 동일한 철학 명제를 사용하지만 그 함의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며, 정상봉은 주자의 중화구설

을 협의의 심체유행설, 중화신설을 광의의 심체유행설로 설명하고 있다. 즉 省察先於涵養의 중화구설은 心이란 외물에 접하여 감응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涵養先於省察의 중화신설은 心을 외물에 접하지 않은 상태와 접하여 감응한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화신설의 완성으로 주자는 仁說을 확립한다.